



돌담길에서 푸근한 인심을 얻는 금당실마을에서의 하루

경북 예천

25

돌담길을 걷는다는 것은 꽤 운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아담한 집들이 모여있고, 푸근한 인심의 마을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면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다. 금당실마을에는 무려 7km의 돌담길이 있다. 황토와 돌로 만든 기와를 얹은 담장이 있지만,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돌담길이 대부분이다. 높지 않고 아늑한 느낌에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마을에 담아두고 싶은 마을풍경, 금당실마을

소백산 자락에 있는 경북 예천의 금당실마을은 '물에 떠있는 연꽃'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하려 했던 곳이며, 풍수지리학자 남사고는 정감록에서 금당실을 십승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다. 금당실마을은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고택과 양반문화를 그대로 간직했다. 함양 박씨 3인을 모신 금곡서원, 양주대감 이윤인의 99칸 고택터, 김빈 도승지를 추모하는 반송재 등의 고택은 오랫동안 마을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보존되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금당길을 중심으로 왼쪽에 중앙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고택길, 은행나무길, 나무지개길에 뻗어있어 산책할 수 있다. 오미봉에 올라가 한눈에 마을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수려해서 마냥 마음 속에 담아두고 싶다.



금당실마을 같은
소중한 유산을 가진 예천

계곡에 자리잡은 초간정

계류 옆 암반 위에 기단을 쌓고 지은 정자로서 초간 권문해 선생이 만들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초간정의 모습은 울창한 송림과 더불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이다. 선인들의 멋스러움과 자연친화적인 삶의 지혜가 엿보이는 건물이기도 하다.



늘 푸른 예천 금당실 송림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된 예천의 금당실 송림은 자연림으로 마을 서쪽 오미봉 밑에서부터 운문초등학교 앞까지 약 800m에 걸쳐 소나무 수백 그루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수해방지와 방풍림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되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 숲이다.

예천 권씨 병암정 및 별묘

1898년에 건립된 병암정은 4칸·연면 2칸 반의 규모로 겹처마팔작지붕을 갖춘 정자다. 1920년에 건립된 사당 별묘는 1946년에 병암정 근처로 옮겨 세워졌다. 조선 후기 정자의 건축양식과 전통 조경양식을 연구하는 데 이용 가치가 있으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53호로 지정됐다. 현재 예천 권씨 병암문중에서 소유 및 관리한다.



금당실마을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 신갈JC → 영동고속도로 → 만종JC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 동본사거리 → 우계삼거리 → 대제삼거리 → 능천리 노인회관 → 방두들길(우회전) → 방두지 → 금당실마을

(☎054-654-2222, geumdangsil.invil.org)

기타 관광지



용문사 신라 경덕왕 10년(870년)에 예천 출신의 두운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용문사는 다양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보물 145호의 대장전을 비롯해 유장대, 교지, 목불좌상 및 목각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자운루는 용문사가 보유한 주요 문화재다.



회룡포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회룡포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태극무늬 모양으로 휘감고 돌아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다. 강이 방향을 틀어 상류로 거슬러 흘러가는 기이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삼강주막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삼강주막은 보부상과 시인, 묵객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주변을 노닐며 구경하던 장소였다. 마지막 주모할머니가 떠난 후 방치됐다가 2007년 옛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 현재 옛 기억을 떠올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먹거리

예천순대 예천군 용궁면에서는 특별한 순대를 맛볼 수 있다. 보통 소창이나 대창을 이용해 순대를 만들지만, 예천의 순대는 돼지막창을 사용한다. 맛은 부드럽고 고소하며, 순대의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이다.

청포묵 녹두로 만든 청포묵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슬로푸드다. 비취색 색깔이 고운 청포묵을 국수처럼 채를 쳐 당근, 미나리, 숙주나물, 김가루 등 오색 곱이를 얹어 참기름과 양념간장에 비벼 먹으면 된다. 소화가 잘되고 기력회복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여행코스

